

# 왜 주민자치인가?

**경북대학교 철학과**  
**김석수**



“우리에게 시급한 것은 세계가 너무 한쪽으로 치달지 않고 균형을 유지하도록 그 방향을 전환해야 하는 것이다. 도시와 지방, 남성과 여성 그리고 문화와 자연 사이의 균형을 복원해야 한다. 라다크의 사례처럼 우리는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해주는 상호연계의 의미를 이해함으로써 향후 나아갈 방향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지역적인 것과 세계적인 것 사이의 균형을 복원해야 한다. ‘세계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는 표어가 자주 회자되기는 하지만 현대화의 추진력은 전적으로 세계화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지역의 문화와 경제체제는 사라져가고 있고 그 과정에서 동물과 식물의 종도 줄어들고 있다. 지역적인 것과 세계적인 것 →

**사이에서 지속 가능한 중도를  
찾는 과정은 탈중심화를 향한  
적극적인 노력을 포함한다.**”(헤레나

노르베리 호지, <<오래된 미래>>, 양희승 옮김, 중앙books,  
2012, 45, 292쪽 참조)

# 1. 주민자치란?

## 1) 주민 + 자치

2) 주민: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 (<지방자치법>(201.7.26), 제2장 12조)

### **3) 주민 권리:**

**(1) 거주지 공공 시설 사용권  
행정 서비스 혜택권**

**(2) 지방선거 참여권**

**(\* ‘지방자치법’ 제2장 13조)**

## **4) 조례 제정 개폐, 주민의 감사청구 주민소송**

**( ‘지방자치법 ’ 제2장 14, 15, 16조)**

## **5) 주민의 실질적 자격**

**(1) 자주성, 자립성, 자율성**

**(2) 공감성, 협동성, 연대성**

## **4) 자치의 실질적 의미**

**(1) 경제적 자립**

**(2) 정치적 자주**

**(3) 도덕적 자율**

**(4) 미적 연대**



## 5) 주민자치의 목적

(1)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주민자치회의 목표 →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 → ‘무지개(和而不同)’ 사회

(2) 안전행정부: 주민자치회 → 생활자치(정치/행정/경제권력으로부터의 독립)

- **생활자치: 민주시민교육**

- 사유의 독립성을 넘어 참된  
정치성 확립

- 사유의 한계자각(aporia)

- 양심(con+science)

- 자율성 + 공감성

- 유럽 :

**아우또노미아(autonomia) 운동**

**+**

**다중(multitude) 운동**

“우리들은 도시의 성벽이 시골  
의 농가를 파괴한 파편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임을 상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수도에 솟아  
있는 모든 궁전을 볼 때마다,  
나는 지방 전체가 황폐해 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갖는다.”(J.  
J. 루소, 『사회계약론』, 朴玉茁 역, 박영사,  
1990, 189쪽 참조.

## 6) 주민자치의 필요성

- (1) 중심과 주변의 차별화가 낳은 반민주성과 반효율성**
- (2) 글로벌리즘을 넘어가는 글로벌컬리즘 요구**
- (3) 경쟁사회 → 피로사회 → 포기사회 → 싱글사회 → 혐오사회 → 융합/분리 불안사회 → 자기놀이사회 → 망상사회**

## **(4) 장소회복을 통한 정체성 구현 → 마을(일터+놀이터+쉼터) 만들기**

- 압축성장: 장소붕괴 → 이웃붕괴  
→ 인터넷, 로봇문화 확장 → 단순  
성(동물, 기계)에 대한 욕구 → 자  
기놀이 심취**
- 중세; 종교국가=신 ↔ 근대 이후:  
시장국가=돈 → 추상적 보편 지배.  
서양의 시민혁명 = 한국 87년 6월  
민주화운동**

“진짜, 고독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것 아닌가? 학업에 시달리는 아이의 고독, 직장에서 퇴출당할까 불안해하는 아버지의 고독, 모두가 떠나버린 중년부인의 고독, 학생으로부터 권위를 상실당한 교육자의 고독, →

열악한 노동조건에 시달리는 비  
정규직의 고독, 아직도 타자일 수  
밖에 없는 여성의 고독, 출세한  
자들이 삶의 무의미에서 느끼는  
고독, 세상의 소리와 엇박자가 나  
는 지도자의 고독, 이렇게 수많은  
고독이 존재하지만, 우리는 진정  
이 고독을 제대로 느끼기나 하는  
가? 그리고 이 고독을 들어줄 현  
실공간은 과연 존재하는가? →

시간이 삭제되어버린 죽은 공간이 아니라, 역사를 품고 살아 있는 시간을 담지한 자리로서의 공간을 우리는 어디서 만날 수 있는가? 시간이 죽고, 장소가 죽고, 그 속에 거주하는 몸들이 죽어, 이야기가 사라진 죽음의 도시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것 아닌가?

(김석수, <나는 누구인가?>, 7쪽)



## **7) 주민자치의 현주소**

- (1) 선택적 공동체의 지배로 장소가 일터 중심으로 집중됨**
- (2) 경쟁관계, 의심관계, 능력관계의 확장**
- (3) 주민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관심 미약, 관주도로 운영**
- (\* 주민자치위원 선발과정: 지방자치단체장의 위촉 형태. 지방자치법 29조 1항 참조)**

- (4) 생활자치보다는 행사자치에  
치중: 내용자치보다 형식자치  
에 기움 → 주체로서의 주민이  
기보다는 관람자로서의 주민**
- (5) 마을공동체<학교공동체<직장  
공동체**
- (6) 나눔공동체<이익공동체**
- (7) 동네붕괴 → 학교붕괴  
→ 지방붕괴 → 국가붕괴**

“우리는 ..... 마을공동체와 직장공동체가 서로 유기적으로 공생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사실 현대사회는 직장공동체가 마을공동체를 압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업 중심의 도시가 거주지 중심의 마을을 잠식하고, 따라서 경제적 삶이 정치적 삶을 압도하는 오늘의 현실에서는 이 같은 현상은 너무나 당연하다. 일터에서 직장인들은 과도한 업무와 긴장에 시달려 자신들이 소속된 가족공동체와 마을공동체에 제대로 참여할 수가 없다. 이로 인해 직장에서도 일의 능률성과 만족도는 매우 떨어지게 된다. 게다가 직장인은 가족의 자녀 교육 문제로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다. →

가족 구성원은 직장과 교육 문제로 서로 갈등과 고립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 마을공동체가 붕괴되고, 지방의 시골공동체도 와해되고 있다. 또한 역으로 마을공동체의 붕괴와 학교공동체의 시장화로 직장공동체의 피로도도 더욱 더 증가하고 있다. 한 마디로 우리 사회의 공동체는 악순환에 처해있다. 공동체의 이 같은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직장(직업)공동체, 학교(교육)공동체, 마을(거주)공동체 사이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참된 자치공동체의 마련을 위한 정책 역시 공동체들 사이의 이런 유기적 관점에 기초하여 세워지고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주민자치의 정책 수립은 마을자치에 국한해서 이루어져서는 안 되며, 직장자치와 학교자치와 유기적 관계 속에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주민들은 이번 6·4지방선거도 자치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김석수, <6. 4지방선거는 주민자치의 새로운 도약의 길>, 2쪽)

## 2. 주민자치의 활성화

- 1) 주민자치의 활성화는 학교자치, 직장자치와 연계하여 이루어져야 함.
- 2) 지금처럼 학교와 직장에 예속된 구조 속에서는 주민자치의 현실화가 어려움.
- 3) 행사지향성 자치에서 소통지향성 자치로
- 4) 외부 전문성이 아니라 내부 전문성의 주체화

. 빛내서 교육비를 지원하는 에  
듀푸어가 2016년말 60만6천  
가구에 이르며, 직장인 10명  
중 4명에 여기에 속한다(송기석,  
「인사말」, 노수석열사추모사업회 외,  
『‘헬-우골탑’해소방안, 차기정부에 요구한  
다』, 6쪽 2017.4.12. 6쪽 참조)

**5) 주민자치: 학교교육과 직장교육에 기여 방안 모색**

**6) 공동체 구성원들의 친근감 마련 → 이야기 마당 펼치기  
→ 인문공동체 확립**

**•놀이공동체, 쉼공동체, 일공동체의  
유기적 연계성 강화**

**7) 정치공동체, 경제공동체  
→ 인문공동체**



- 8) 한국사회 교육자치 없는  
마을자치, 주민자치 불가능**
- 9) 교육자치는 자신의 장소에  
생명과 개성을 불어넣고  
이웃과 함께 하는 문화자치를  
이루어냄**
- 10) 교육자치는 자치의 근간인  
자립, 즉 경제자치를  
가능하게 함**
- 11) 교육자치는 자치의 근간인  
자주, 자율, 즉 정치자치를  
가능하게 함**

## **12) 우리 주민의 교육자치의 길**

- (1) 인문학적 상상력 기르기를 통한 창조적 인간 구현**
- (2) 인문학적 상상력 기르기를 통한 공감적 인간 구현**
- (3) 개념 → 한계개념 → 양심 → 실천적 자아 → 미학적 자아 → 숭고적 자아**
- (4) 정의로운 정치적 공동체 + 정당한 경제적 공동체 + 아름다운 미적 공동체 + 숭고한 종교적 공동체**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서로 간의  
차이를 인정하고 개인의 자유  
와 개성을 존중하면서 마을에  
대한 공통적인 이해를 가지고,  
협동의 규칙을 만들어 가는 것  
이 마을 만들기인 것이다.”(다무라 아

키라, <<마을 만들기 실천>>, 장준호/김선직 옮김, 형설출판  
사, 2008, 231쪽)

“아름다움은 이해하지 않고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소유하지 않고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준다. 아름다움은 우리가 반사적으로 지식이나 소유주로서 행동하지 않게 하고, 소유욕과 편협한 합리주의에서, 대상을 정복하겠다는 강박관념에서 우리를 해방한다. 오늘날 상대주의 시대지만, 아름다움은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서 →

**“타인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 하  
는 절대적인 욕망이 꿈틀거리  
고 있음을 일깨운다.”**(샤를 페갱, <<아  
름다움이 우리를 구원할 때>>, 양해진 옮김, 이숲,  
2016, 189쪽)

# 욕망공동체



# 도덕공동체



# 미학공동체

# 감사합니다